

▶ 공 지 사 항 ◀

- **선망 조상 및 인연 영가 백중 49일기도 안내**
입재: 7월 5일(일) - 회향: 8월 23일, 등참비 \$100.

- 7월 12일 불타사 불문회 총회
- 7월 19일 회주스님 법회, 불타사 골프대회
- 8월 16일 불타사 제 54회 법등회의

▶ 기 도 동 참(6월 21일 - 6월 27일)◀

- 법등: 이승연 최성만 정여교 이충일 박홍식 박승현 박승봉 음주회
- 인등만등: 최종호 최엘리사 최로버트 마이코 시드니 박홍식손주
- 백중기도: 조재이 김철수
- 보 시: 함영조 한미은행(연등) 낙원떡집
- 공양 : 조재이(대중공양)
- 해민스님 법회 후원내역
-6/7 우리마을: \$300, 장충동 족발: \$200, 최성만(꽃): \$180 윤여원(떡) \$180
-6/14 미도리: \$1,300, 태극절: \$120, 원불교: \$100
-6/7 티켓: \$3420
-6/27 로얄auto: \$100, BBCN BANK: \$300, 한미은행: \$2500

▶ 법회 및 기도 안내◀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불타 한글학교 :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30
- 영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어린이 법회 :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 일요일 오후 2시
- 참선수행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불타합창단: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8시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시카고불타사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6월 28일 제 45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부처님 말씀

과 보

과보를 받게 되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시정보부정(時定報不定)이니 과거 현재 미래는 결정되어 바꿀 수 없지만 짓는 업에 따라 과보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시부정보정(時不定報定)이니 지은 업에 따라 과보는 바꿀 수 없으나 받을 시기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시보구정(時報具定)이니 지은 업이 결정적이므로 받을 시기와 과보도 결정적인 것이다. 넷째는 시보구부정(時報具不定)이니 지은 업이 일정치 않아서 시기와 과보도 일정치 않은 것이다. 착한 마음과 지혜의 인연 때문에 나쁜 과보가 확정되었더라도 바뀌어서 가볍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보가 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찌하여 과보가 결정되었다고 하는가? 항상 짓고는 뉘우치지 않기 때문이요, 또 그 같은 과보가 이루어지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기 때문이요, 간절한 서원을 통해 이루려 하는 때문이요, 지은 뒤에는 그 과보를 예상하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업을 가벼움과 무거움, 먼 것과 가까운 것 등 인연 따라 앞뒤를 바꾸어 받을 수도 있나니 보시와 계행과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을 닦으며 선과 악에는 그에 따른 과보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행하면 이 사람은 무거운 업은 가볍게 받고 가벼운 업은 소멸케 되리라. 또 수행자나 선지식을 만나 금생에 착한 도를 닦으면 이 사람은 내생의 무거운 과보를 금생에 가볍게 받는다. - 정법염처경 -

단니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매우 가난하였다. 부부가 겨우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있어 남편이 두르고 외출하면 아내는 알몸으로 거적을 쓰고 지냈고 아내가 두르고 외출하면 남편이 알몸으로 지냈다. 이때 마침 어떤 비구가 걸식하러 나왔다가 그녀에게 설법해 주니 그는 감화되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이 전생에 보시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빈궁하게 되었으니 금생에도 보시를 못한다면 내생 역시 참으로 비참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대답했다. “그러나 어찌하리요.” 아내가 말했다.

“이 담요라도 시주할까 합니다.” 남편이 놀라서 말했다.

“두 사람이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드나들며 먹고 사는데 이것을 시주한다면 어떻게 지내란 말이에요?” 아내가 말했다.

“차라리 시주를 하고 죽은 뒤의 희망을 기대할지언정 보시하지 않고 죽은 뒤 내생에 더 괴로울 수는 없습니다.” 남편도 기뻐하며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아내가 비구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이 담요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속에는 옷이 없으니 여기에서 벗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담요를 벗어 던져 주었다. 비구가 축원한 뒤 가지고 부처님께로 갔다. 대중들은 그 더러움을 혐오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내가 여러 대중들의 시주받은 물건을 살펴보니 청정하고 큰 보시가 이 담요보다 더한 것이 없다.”

대중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말이 없더니 왕과 왕비가 이 사연을 전해 듣고 각각 옷을 벗어 그 부부에게 주고, 불러다가 함께 법문을 듣게 하였다. - 현우경 -

바라내국에 일난(日難)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매우 인색하였다. 그의 아들 전단도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아 매우 인색하였다.

일난이 죽어 눈먼 부인의 배에 의탁했다가 나왔는데, 그 또한 눈이 멀었다. 걸식으로 커가서 나이 일곱이 되자 자기도 걸식을 나섰는데 마침 전생의 아들인 전단의 집을 들르게 되었다. 문턱에 들어서자 문지기가 때려 내쫓으니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졌다. 이때 부처님께서 교화하러 나오셨다가 눈먼 아이를 보시고 머리를 만져 주시니 눈이 활짝 뜨이고 부러진 팔이 나왔다. 그리고 전생 일까지도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일난 장자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한 생을 지난 부자끼리도 이다지 모르는구나!” - 제경요집 -
유리왕이 사위국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군사를 동원하여 쳐들어오니 목건련이 딱하게 여겨 부처님께서 사뢰었다.

“네 가지 방편으로 사위국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사위국을 들어다가 허공에 두는 일이요,

둘째는 바다 밑에, 셋째는 철위산 사이에, 넷째는 다른 세계에 두어 유리왕이 보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중생에게 일곱 가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 생·노·병·사·죄·재앙·인연이니 면하려 하여도 되지 않느니라.” 그러나 목건련은 사위국의 4,500명쯤의 백성을 발우에 담아 허공 속 별 틈에 감춰 두고 유리왕이 사위국의 모든 백성을 전멸시키고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자랑스럽게 부처님께 사뢰었다. “유리왕이 사위국을 전멸시켰는데 제자가 4,5000명을 허공에다 대피시켜 무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발우 안을 살펴보았느냐?”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신통력으로 발우를 내려 보니 과연 모두 죽어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전생의 업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아함경-

